



산업보건 주요뉴스



노사정, 전문가 모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16일(금) 오전 10시 노사 및 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노사관계 이슈와 이중구조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슈화된 노사관계 갈등의 저변에 자리 잡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를 논의하고,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53년에 제정되어 70년간 유지되어 온 공장법 시대의 고용노동시스템과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 부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 다변화에 맞춰 노동법 체계를 다층화하는 등 노동법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산업, 업종, 지역, 원·하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등 기득권 추구와 하청 근로자들의 미조직화, 취약한 교섭력 등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있다”면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기업 단위를 넘어선 연대 지향적 노사관계 확대 노력과 함께 미조직 근로자들도 실질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개별 당사자들의 선택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은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 결정 단위는 여전히 기업이어서 근로자 간 격차가 지속 발생한다”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이정희 본부장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 수준의 단체교섭을 확장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만의 대표성이 아닌 근로자 전체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총 장정우 본부장은 “그간 급속한 산업변화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규-비정규직, 원-하청 등 이분법적 시각으로 노사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제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규식 박사는 “사내 하청·위탁 등 간접고용 영역에서의 원청 지배적인 힘의 불균형은 끊임없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청은 전문적인 경영 관리능력을 갖춰야 하고, 정부와 노사는 하청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교수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노사정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87년 이후 심화하고, 그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으로 더 악화한 오래된 노동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초기업 교섭 활성화, 현행 법제의 미세 수정 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중장기 개혁방안은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분석, 해법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활용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은 10개 장으로, 안전보건경영절차서는 15개 절차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20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의 '실행' 항목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 등 일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서에서는 책임과 권한에 따른 '운영계획과 관리 절차'를 담았고, 지침에는 '일반작업 안전지침', '위험상황 작업중지 요청 지침' 등의 세부 수행사항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장 또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공단 누리집 초기화면의 자료마당-통합자료실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올해 중대법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공단이 실제 운영 중인 이번 사례집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념

- ① 안전보건경영 매뉴얼 10장(p60)
 - PDCA 기반의 추진사항 등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자료
- ②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15종(p150)
 - 매뉴얼에서 명시한 추진사항에 대한 수행주체 및 책임·권한, 시기, 방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
- ③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20종(p141)
 - 절차서 내용 중 "운영(실행)"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기한 자료 (※기관 또는 사업장의 업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